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9강

“소망씨가 간증하다”

- 엡 2:1-10 -

A. 소망씨의 간증

1. 이전의 모습



소망: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냈더라면 아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크리스천: 대체 어떤 것들이었기에 그러나?

소망: 세상의 보배와 영화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고, 흥청망청 놀고, 취하도록 술을 들이켜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어기는 걸 비롯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2. 진리를 접하자 죄의식이 생기게 되다

말씀이 마음을 뒤흔들어놓기 시작했을 때도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신 역사인 줄 몰랐어요.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회개하기를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뒹구는 게 너무 좋아서 헤어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죄를 확실하게 의식할 때마다 너무 괴롭고 겁이 나서 아예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요 16:7-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3. 죄를 자각하다

어떨 때 죄가 떠오르던가? ... 거리에서 선량한 이들을 만난다든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웃사람이 병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상여소리가 귓가에 울린다든지,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짓던 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시 저지른다는 생각만 해도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 나의 한계를 경험하다

생활방식을 바꿔야겠다 싶더군요. 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죄를 일삼는 친구들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따위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도 열심을 냈고요. 그 밖에도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롬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5. 그리스도를 바라봄

어떻게 그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인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시려고 수 치스러운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신뢰하면 주님의 거룩함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6.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도록 간절히 구하다

(렘 29:12-13)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저처럼 불쌍한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왔으니,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확신하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힘입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힘을 합쳐도 날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왕 죽을 거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고 싶었어요 ... 계속 기도하게 되자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 그러자 문득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마디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 나오는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이라는 거죠.

(주님은 내 믿음의 확신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 나는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왔다. (딤후 1:15)
2.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었다. (롬 10:4)
3. 나는 너희의 죄로 죽음을 당하였고 의롭게 하시려 부활하였다. (롬 4:25)
4. 나는 죄인을 사랑하며 나의 피로 모든 죄인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계 1:5; 딤후 2:5)
5. 나는 지금도 살아 너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다 (히 7:25)

B. 무지의 잘못된 신앙

1. 무지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열납되게 하시며,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2. 크리스천이 밝히는 무지의 거짓 믿음

첫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취해 그것을 당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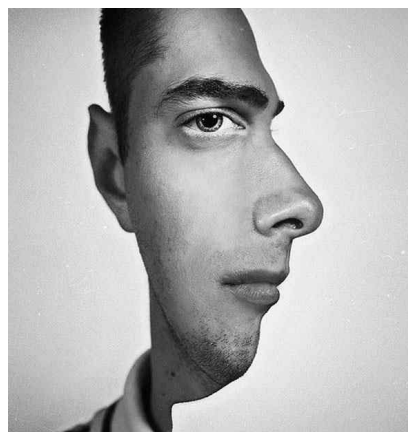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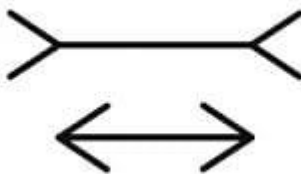
넷째로, 이 믿음은 기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나의 행위를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 11:27-28)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3. 인간이 얼마나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을까?



Welche Thiere gleichen ein-
ander am meisten?



Raninchen und Ente.